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구절: 마가복음 4: 3-20

3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 버렸고, 5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6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7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 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8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삼십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백 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9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0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쭙매, 11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12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13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 ¶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15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16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17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18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19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20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삼십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백 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1. 네 가지 토양과 사람의 마음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이지만 이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이 비유에 대한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 지는 과정과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생명처럼 자라고 결실함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낳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가. 씨는 복음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4:14]. 씨에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가 전할 때에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뿌리가 내리며 성장하고 결실하게 됩니다.

나. 씨를 토양에 뿌리는 것과 같이 말씀은 “마음 속에 뿌려지는” [4:15]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잘 준비된 토양에만 씨를 뿌리며 그렇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험한 상태의 토양에는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비유가 함축적으로 인지하는 것처럼 복음 전파의 역사에는 비효율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심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혹시나 결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 다. 길가 땅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단단히 굳어서 씨를 뿌려도 흙 속으로 들어갈 여지가 없는 땅입니다. 온갖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여러 철학과 종교에 쉽게 빠지고 하나님께 부드러운 회개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말씀을 전해도 가슴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 뿌리는 내릴 여유도 없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4:15]. 이런 사람에게도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지금이 아직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 라. 돌밭 땅에는 딱딱한 돌이 흙 속에도 있고 흙 위에도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비판적인 딱딱함이 응어리 져서 말씀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으나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쉽게 실족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4:17]. 어떤 경우에는 돌 사이에 식물이 성장하고 있지만 결실에는 이르지 못하고 추수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뽑혀서 버려지는 경우도 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몸으로 실천하는 경지에는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고 그저 영적으로 허덕이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자들도 이렇게 돌밭 인생과 같다고 봅니다. 가슴 속 깊이 박힌 돌들을 빼어 던져 버리고, 남에게 쉽게 집어 던지는 돌덩어리와 같은 비판과 냉소, 자만심을 내어 던져 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따스함을 품어야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 마. 가시나무 땅과 같은 사람들의 인생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결실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아도 염려하고 부족하면 더욱 염려 걱정으로 매일 한숨을 쉬는 그런 사람, 재물이 있어서 그 재물이 이끄는 유혹의 길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 그리고 “다른 것들”, 즉 쾌락이나 지적 추구나 스포츠나 여타 안목과 인간적 갈급함을 채우고자 허겁지겁하는 인생들은 모두 이런 부류로서 교회에 등록하고 충실히 출석하지만 크리스찬의 덕목은 보기 힘들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도덕성이 훨씬 뒤져서 비난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보기 힘듭니다. 결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는 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무엇을 없애야 할 것인가 자신의 가슴을 주님께 내어 보이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을 과감히 내어 버리는 행동파 회개인이 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어야 그 다음 단계로 말씀의 성장과 의의 열매가 따를 것입니다.

2. 토양과 결실

- 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삼십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백 배를” [4:8] 낸다고 주님께서 좋은 토양과 결실의 관계를 묘사하셨고,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결실을 내는 자들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4:20]. 다시 말하면, 깨어지고 부드럽게 된 땅, 땅 속과 땅 위에 있는 돌들을 모두 제거한 땅, 그리고 가시 덩굴을 모두 제거한 그런 땅이어야 씨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 씨가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 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뿌리 내림과 성장, 그리고 결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꼭 제거해야 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하나씩

제거해 내고, 말씀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키워 나가며, 결실이 되도록 참된 농부처럼 매일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충실한 종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책임

가. 앞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인생에서 말씀의 정착, 성장 및 결실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책임이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자의적인, 그리고 목적 의식적인 회개 및 인생 대청소 작업을 도와 주시며, 우리 안에 성장과 결실이 있도록 도와 주시는 신실한 농부이십니다.

[시편 65:9-10] 9 주께서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시되 물이 가득한[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심히 기름지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위하여 예비하신 뒤에 그들에게 곡식을 마련해 주시나이다.

10 주께서 땅의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땅의 고랑을 자리 잡게 하시며 또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서 움트는 것에 복을 주시나이다.

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한 농부이심은 일찌기 에덴 동산을 가꾸시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 앞에 잘 성장되고 결실이 풍부한, 부족함이 없는 동산을 마련해 주셨던 사실을 보아 잘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2:9]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농부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면서 매일 그 분의 친절하신 지도아래 우리 마음을 일구고 정리하여 그 분의 귀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여 귀한 열매 맺도록 축복받으시기 원합니다.